

지구 저편의 인권 - 넓어진 '우리'를 향한 첫 발걸음

김정환

1. '우리'가 아닌 '남'들의 인권을 쫓아...

법학도인 나는 사실 국내의 법 보다는 세계와 국제 관계에 관심이 더 많아 대학 재학 중 국제법과 국제 관계론 등을 관심 있게 공부하였고, 휴학까지 해가며 15개국에 넘는 나라를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등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계의 여러 나라 특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제 3세계 나라들을 여행하며 그 곳에 있는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또, '연을 쫓는 아이', '천 개의 찬란한 태양'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다소 편안했던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지구 저편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잔혹하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나의 관심은 나아가 내가 삶에서 항상 찾아 헤맸던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어렵듯한 윤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관련 문제들 보다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이 갔었지만, 내 개인적 관심에 따라 국제 인권을 공부하면서도 '왜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인권 보다 먼 나라, 먼 사람들의 인권에 더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 앉아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이러한 공부를 계속 하던 중, 유엔에 내 관심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국제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 (OHCHR)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유엔과 국제 인권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고 또,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태국의 방콕에 위치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 동남아 지역 사무소에 인턴으로 지원하여 2011년 2월부터 6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2. 제 3세계 인권을 피부로 느끼기 위하여

인턴 시작일 보다 다소 일찍 동남아로 떠나, 혼자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자전거로 여행하며, 내가 앞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미리 피부로 느끼며 유엔에서의 첫 시작을 준비하였다.

캄보디아 교외를 여행하던 중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한 캄보디아 학생이 자신의 집과 학교를 구경시켜주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간의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3평 남짓한 헛간에서 열리는 학교를 다니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어를 공부하여 앞으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낯은 세계 지도를 쳐다보는 그 아이의 희망 가득한 눈에서 나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 자신의 선택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3. 유엔에서의 근무

내가 근무하게 된 태국의 방콕에는 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라는 큰 기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을 관할하는

크고 굵직한 부서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 큰 빌딩 한 구석에 자리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 동남아 지역 사무소 - UN OHCH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or South-East Asia 는 3명의 인권 사무관들과 2명의 직원 그리고 4명의 인턴과 1명의 지역 컨설턴트로 구성된 아주 작은 부서였다. 부서가 작다 보니, 인턴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바빴고, 제법 많은 일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방콕의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 동남아 지역 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즉, ASEAN에 속한 국가들 이다. 이곳에서는 인권에 관련된 조약들이 관할 국가 내에서 잘 이행되는지를 관찰하고, 각 국가들에게 인권 관련 조언을 하고, 보류된 혹은 아직 체결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은 인권 조약들을 체결, 이행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관할국의 인권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 하고, 인권침해 (인신매매, 외국인노동자, 고문, 여성, 소수민족, 표현 및 종교의 자유 등) 문제들을 평가하여 보고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매 월 제네바에 있는 Headquarter에 보내지며 해당 사안에 맞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인턴들의 직무는 제법 막중하여, 유엔 인권보장체계와 핵심 인권조약의 당사국의 의무 이행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및 후속조치에 대한 분석, 검토 등을 비롯해, ASEAN 지역 내 인권 관련 뉴스 모니터링, 인권 침해관련 월간 보고서 작성,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접수 등의 일들을 보조하였다. 유엔 내 여러 기구와 NGO들, 정부 기관 등과의 회의 조직을 돕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크고 작은 국제 회의에도 직접 참가하여 이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4. 가법지만은 않았던 OHCHR 인턴의 직무

유엔 내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고, 각 부서마다 인턴의 직무와 비중은 많이 다르다. 우리 부서는 규모가 작은 만큼 인턴들에게 손을 많이 빌리는 편이었는데, 규모가 훨씬 큰 부서도 보통 2명 정도의 인턴이 있던 것에 비해, 우리는 작은 부서에 4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인턴을 두었다. 한국,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인턴들은 국제 인권 안의 커다란 주제와 관할 국가를 관심 별로 각각 담당하여 보조하였다. 나의 경우 국제 인권 중에서도 여성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에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미팅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를 보조하였다.

우리 부서는 한국인 사무관님도 있었고, 한국 인턴들도 많이 거쳐갔다. 한국은 5.18 민주화 운동 이후로 다른 국가에 귀감이 될만한 빠르고, 눈부신 인권 신장을 이룬 만큼, 유엔에서 이를 모범 사례로 들고,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지 않으나 싶다. 요즘 반도체,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우수한 품질을 들고 세계시장에 수출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인권 신장 과정 역시 모범사례로써 다른 나라에 수출(?) 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5. 우리는 모르는 심각한 인권 유린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인턴은 업무를 보조하는 일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목적도 두고 있기

에, 인턴 업무를 보며, 국제 인권에 대한 많은 경험과 실무 지식을 쌓게 되었고, 국제법과 국제 정치 그리고 유엔 자체의 체계와 구조, 작동원리 그리고 유엔과 각국 정부, 외교사절과 NGO 간의 관계와 기능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 할 수 있었다. 또한, 동남아라는 지역이 놓인 특수한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인종과 종교들이 섞여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민족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심각한 갈등들이 존재한다. 같은 아시아인 끼리도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인종과 종교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거사로부터 비롯한 악감정보다 훨씬 더 심한 악감정이 이곳 동남아의 각 나라들 마다 복잡하게 얽혀 존재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아직도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와 그곳의 유적인 절의 소유를 두고 사상자가 매일같이 발생하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열악한 나라인 미얀마에서 온 수많은 망명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각종 인권유린을 당하며 매우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특히나 발달한 성매매 산업도 정말 큰 문제인데, 상당수의 성매매 업종사 여성이 성병과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 역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동남아 여성과의 계약 결혼의 알선 등으로 이러한 인신매매에 일조한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6. 좁아진 지구, 넓어진 '우리' - 그들도 '우리'다

유엔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왜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인권 보다 먼 나라, 먼 사람들의 인권에 더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지역, 국가간의 거리가 좁아져 국가간의 거리와 경계가 사실상 소멸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 국한되었던, '우리'라는 말의 범위가 세계화와 함께 넓어져 '우리 가족'이나 '우리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지구'라는 넓은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를 우리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도와야 함이 당연하다고 느꼈다.

둘째로, 아직도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이지만, 세계 GDP 15위국인 우리조차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제3세계 국가들을 '우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로 취급하여 모른척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 나라' 문제만을 신경쓰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7. 유엔... 그 막연함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재선이 되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국제 뉴스를 접하면서 유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가는 하지만, 아직도 유엔에 진출한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적다. 유엔이라는 단체와 그곳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알고 있던 한 유엔의 사무관님은 '유엔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존재하며, 유엔이 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무작정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고 보다는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무작정 유엔이라는 직장을 희망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를 파악하고, 자신이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한 후 그에 맞는 공부와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희망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엔에서의 인턴은 보통 무급이지만 (유엔 부서중하나인 ILO만 유일하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유엔 인턴들 사이에서 인턴에게도 국제 노동기준에 의거한 어느 정도의 보수의 지급을 촉구하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유엔 인턴쉽의 기회에 관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한국의 환경부, 노동부, 외교부 등에서 공채를 통해 국제기구 쪽으로 인턴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유엔인턴공식웹사이트 (<http://www.un.org/Depts/OHRM/sds/internsh/index.htm>)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UN ESCAP은 별도의 웹사이트 (<http://www.unescap.org/jobs/internships/>)를 통하여 인턴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 공식 채용 웹사이트 (<http://careers.un.org/>) 에서도 인턴쉽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근무를 원하는 관심 부서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는 방법도 있다.

8. 유엔 근무 후 인권을 향한 나의 도전들

유엔에서의 근무 후, 내가 보고 느낀 국제 인권의 원리와 동남아 지역의 인권 현황을 내 조국인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를 다루는지를 알고 싶어, 한국 인권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인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국 인권의 현황은 물론, 인권위라는 국가 기관의 한국 내, 국제 관계 내 위치를 알게 되었고 국내외적인 수준에서의 많은 인권 관련 작동원리를 알게 되었으며,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한국의 입지 또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또다시 한국에 있는 유럽연합 대사관으로 발을 옮겼다. 주한 유럽연합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 관련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알려진 유럽 국가들과, 유럽 연합의 수많은 인권 관련 체제, 기관 그리고 이들의 작동 원리를 배울 수 있었다.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진행된 나의 인권 공부와 세계 인권의 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사진)



<OHCHR 사무실에서>



<유엔 국제 회의 보조 중>



<OHCHR Retreat 중 부서 단체 사진>



<유엔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사무실 앞에서 인턴 동료와>